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
(063-280-7141)
- **담 당** : 사회문화연구부 이동기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81)

보도시점: 2021년 8월 ??일(월)부터

전북에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필요하다

- ▶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양문화시설(국립해양과학관, 국립해양박물관 등이 부재하여 해양문화향유의 기회 불균형
- ▶ 해양수산부 산하 국책기관 및 “제2차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” 에서도 전북이 해양문화시설이 전무하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
- ▶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도권 및 내륙권 지역에 해양문화격차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및 미래해양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
- ▶ 해양문화향유 및 해양문화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전북에 “국립해양문화시설” 건립이 필요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]

- 해양자원이 풍부한 전북에 국립해양문화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.
- ※ 국립해양문화시설은 국립해양과학관, 국립해양박물관, 국립해양생물자원관, 국립등대박물관,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등을 의미함
-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이슈브리핑 ‘바다해양자원이 풍부한

전북,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(통권 249호)를 발간하였다.

- 해양자원 및 해양 여건이 우수한 전북에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없어 해양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해양문화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.
- 전북의 해안선은 548.5km이며 우리 나라 전체 해안선의 3.7%(14,962.8km)를 차지하고 있고, 육지부해안선 249.05km 중 자연해안선은 40.4%, 인공해안선은 59.6%를 차지하고 있다. 전라북도의 바닷가 면적은 3.06km²로 전체 바닷가 면적(17.65km²)의 17.3%를 차지하고 있어, 전남(50.4%)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. 또한, 해양연안 11개 지역 중 전라북도의 어촌체험마을 이용객수 비율은 전국에서 4번째(12.1%)이다.
- 이처럼 해양자원 및 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, 해양이 있는 지역 중 유일하게 전북이 해양문화시설이 부재하여 해양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. 이러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국책기관의 경우도 지적한 바 있다(한국해양수산개발원, 2013).

※ 지역별 해양문화시설 분포현황: 전남(27.8%), 서울·인천·경기(16.3%), 경남(11.6%), 부산(11.6%), 경북(9.3%), 울산(4.7%), 강원(4.7%), 제주(9.3%), 전북(0%)(한국해양수산개발원, 2013)

- 해양수산부 역시 “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(2013~2023년)에서도 해양문화시설이 전남·경북·경북이 전체의 55.8%를 보유한 반면, 전북의 경우 해양문화시설이 전무하여 균형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최근에 수도권외의 해양문화향유

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해 '국립인천박물관('19~'23) 건립과 내륙권의 균형발전 실현 및 내륙 지역민의 해양의식 고취를 위해 청주에 '미래해양박물관('20~'24)'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.

- 전북연구원 이동기 선임연구위원은 “전북은 해양자원 여건 및 자원이 우수하고 미래 해양문화관광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, 해양문화시설이 부재하기 때문에 해양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균형발전 차원 측면에서도 국립해양문화시설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- 또한, 전북연구원은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4차산업 및 해양에너지 등을 연계한 국립해양과학관, 국립해양근대유산 박물관, 국립미래해양교통과학관(또는 박물관) 등의 사업을 제안하였다.
- 전북의 해양은 역사적으로 중요 어장을 보유하여 어업 경제 및 해양 문화 생활권을 형성하였으나, 해양문화시설의 불모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해양문화체험 및 접근성에 차별을 받고 있어 해양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.